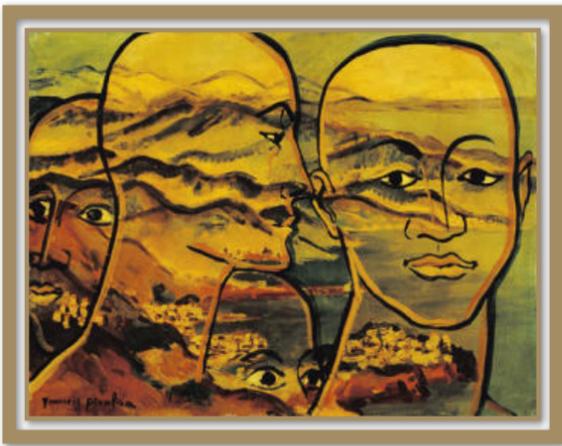


■ 그림 여행



머리 속 풍경들
(Tete - Paysage c. 1928)

프랑스 피카비아 (Francis Picabia 1879 - 1953)
(캔버스에 유채 60.3 cm x 81.2 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미술사를 처음 공부할 때 다다이즘이나 초현실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프랑스 피카비아였다.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르셀 뒤샹과 다다이즘을 주도했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앙드레 브뤼통과 초현실과 운동에 참가한다.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의 작품은 남녀의 에로틱한 상징을 기계적인 도형으로 나타낸 그림들이었다. 이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보다는 그의 이름이 오히려 기억에 남았다. '피카비아'

라는 이름을 '페까비아' 라고 발음해 보면 그가 헌신했던 다다이즘이나 초현실과 운동이 좀 실감나게 느껴졌다고 할까.

피카비아는 원래 인상파에 영향을 받아 구상화를 그렸었다. 새로운 미술 사조를 개척해 그의 이름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뿌리가 구상화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거장들에 비해 그의 작품들은 그다지 큰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듯했다.

시카고에 갔을 때 시간을 내어 아트 인스티튜트에 들렀다. 거기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애써 들러 보기를 백 번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 그림은 피카비아가 다다와 초현실과 운동을 접고 다시 구상화로 돌아섰을 무렵에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하늘과 산, 바다, 그리고 해안의 도시 등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람의 머리들이 이쪽 저쪽 사방을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 즉 기억에 남아 있다. 중첩된 기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화가가 목격한 것들에 대한 것이리라. 굳이 머리카락이 없는 중성적인 인물을 그려 넣은 것은 화가 자신을 넘어 모든 인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일까? 정면으로 눈길을 주고 있는 오른쪽 인물은 관객에게 묻는 듯하다. 당신 머릿속 풍경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고 나서 '페까비아' 라고 그의 이름을 우스꽝스럽게 부르던 것을 마음속으로 사죄했다. 다다이즘도 필요없고 초현실과도 필요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저 프랑스 피카비아라는 좋은 화가였다.

김 동백

가든그로브 비타민 전문점

Organic Vitamins

- 500종류 정도의 비타민과 원료구비
- 비타민 원료 : 아사이, 마취, 블루베리, 고지베리베리, 아로니아, 그라비올라, 크랜베리, 비타민나무, 여주농축액, 차콜, 콜라겐, 블랙커런트, 모링가, 로얄제리원액, 페루산삼, 마카, 트리블러스(산삼보다 높은 사포닌 함유)



이제 비타민은 전문점에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Tel. (714) 534-4938
9972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JJ 웨스턴 건설

WESTERN CONSTRUCTION, INC.
JJ WESTERN PAINT



리모델링 (하우스/커머셜)
키친/화장실
플러밍, 전기공사
타일/마루



페인팅 (하우스/커머셜)
캐비닛 Refinishing
욕조 재생, 창문
신축/증축 (인·허가)
지붕 공사/수리



Tel. (714) 501-7726

Lic. #1068622
Bonded & Insured

7335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